

Entrepreneurial Ecosystems(기업가적 생태계) 개념과 시사점*

구양미**

Entrepreneurial Ecosystems: Key Concepts and Economic Geographical Implications*

Yangmi Koo**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Entrepreneurial Ecosystems의 핵심 개념을 분석하고 경제지리학 연구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과 지리를 결합한 Entrepreneurial Ecosystems이 중요한 개념과 이론으로 부상하였는데, ‘행위자와 요인’, ‘생산적’, ‘영역’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ntrepreneurial Ecosystems에서는 개인적·조직적·제도적 구성요소인 기업가, 스타트업, 기존 기업, 제도와 문화적 요소들이 상호연결되어 ‘기업가적 재순환’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로컬 지역에서 기업가적 문화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고성장 신생기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개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기업가정신(혁신창업)의 지리적·공간적 프로세스를 밝히고 지역기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지리학 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기업가적 생태계, 기업가정신, 기업가, 네트워크, 기업가적 문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ey concept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economic geographical studies.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entrepreneurship as well as changes of its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By combining entrepreneurship and geography, Entrepreneurial Ecosystems, which have recently emerged as important concepts and theories, were examined with the focus on the key concepts such as ‘actors and factors’, ‘productive’ and ‘territory’. It is important that the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omponents such as entrepreneurs, start-ups, existing companies, institutions and cultural elements are interconnected to build communities through ‘entrepreneurial recycling’. Entrepreneurial Ecosystems support to create innovative high-growth start-ups based on entrepreneurial culture in the local region. Despite conceptual limitations,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should be conducted from economic geographical perspectives in order to reveal the geographical and spatial processes of productive entrepreneurship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region-based start-up ecosystems.

Key Words : entrepreneurial ecosystem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 networks, entrepreneurial culture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1269).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겸무연구원,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겸무연구원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Adjunct Researcher,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NU; Adjunct Researcher, SNU Institute on Aging, yangmi@snu.ac.kr)

1. 도입

지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일자리가 우선인지 사람이 우선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전통적으로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가기(people-follow-jobs) 때문에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려 노력했고, 이것이 산업도시나 클러스터 이론의 기반이 되었다. 반면 일자리가 사람을 따라간다(jobs-follow-people)는 주장은 사람(인재)이 선호하는 어메니티와 환경이 갖추어지면 기업이 찾아온다는 창조도시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 분석을 통해 업종이나 일자리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함이 밝혀졌고, 일자리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사람도 일자리를 끌어들이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이 사람 또는 일자리를 끌어들이기보다 지역에서 사람과 일자리, 즉 창업가와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기업가(entrepreneur)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가의 창업과 스타트업이 성공하면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식과 혁신이 지역에 누적되어 순환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물론 창업,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시대적으로 그 용어나 대상의 범위가 변하기는 했지만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오랜 관심의 대상이었다. 경제지리학에서도 신생기업의 창출과 생존, 성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시드베드(seedbed)나 인큐베이터(incubator) 가설과 같이 창업가가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지역의 어떠한 특성이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학술 및 정책 차원에서 2000년대 이후 국가 및 지역 혁신체계, 클러스터, 트리플 헬릭스 구축이 주요 화두였으나, 최근에는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한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생태계, 비즈니스생태계, 혁신생태계, 창업생태계, 스타트업생태계 등

여러 용어가 등장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제 및 산업 활동, 기업의 창출 및 성장에 있어 공간적 맥락, 즉 지역이나 장소,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여러 연구들이 기업가 정신, 창업, 스타트업을 생태계 개념과 연결시켜서 분석하였지만, 학술적 차원에서 최근 화두가 된 Entrepreneurial Ecosystems(이하 EE)의 이론적 측면을 깊이 있게 고찰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례연구가 아직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EE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고, 경제지리학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개념과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기업가정신과 공간경제 연구의 접목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집약적으로 발전된 EE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4장에서는 핵심 개념 분석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킬 것이다. 5장에서는 EE 개념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업가정신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으로 번역되는 ‘entrepreneurship’은 창업이나 창업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novelty)’을 창출하는 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에 창업가 뿐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가진 직원, 다양한 혁신가, 혁신활동을 모두 지칭하며 포괄한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이라는 한국어 표현은 혁신적 창업 뿐 아니라 기존 (대)기업을 포함하는 어감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김도현 등(2017)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라는 이미 정착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앙트러프리너십’이라는 원어식 표기를 사용하여 기업가정신이 가진 표현의 혼란을 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업가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할 것이다.

1)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정의

Solow의 신고전주의 생산함수에서는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를 생산, 자본, 노동으로 보았으며, Romer는 여기에 기술이나 지식의 중요성이 간과되었음을 비판했다. Audretsch and Keilbach(2004)는 이에 더해 또 다른 핵심 요소인 기업가정신 자본(entrepreneurship capital)이 누락되었음을 비판하였다. 기업가정신 자본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를 가진 지역 환경”으로 정의하고 기업이 개인의 자질,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혁신 환경 및 공식·비공식 네트워크와 함께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은 지식 파급효과의 통로 역할을 하고 기업간 경쟁을 증가시키며 다양성을 부여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업가정신이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관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Audretsch and Keilbach, 2004). 기업가정신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인 Shane and Venkatraman(2000)에서는 ‘기회(opportunity)’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업가적 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y) 인지와의 활용 과정이다(Shane and Venkataraman, 2000). 기업가적 기회는 “현재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아이디어, 신념 및 행동(a set of ideas, beliefs, and actions that enable the creation of future goods and services in the absence of current markets for them)”(Sarasvathy 등, 2010: 79)을 의미한다. 즉 기업가정신은 미래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회의 원천, 그 기회의 발견과 평가, 그리고 추구과정 및 이를 추구하는 개인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김도현 등, 2017).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

를 인지하고 시장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Audretsch and Keilbach, 2004). 또한 개인이 이윤창출 기회를 인지·발견하고 개발하는, 그리고 이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창출하고 성장·번성·실패하는 경쟁적 프로세스이다(Plummer and Pe'er, 2010). 이와 같이 개인 기업가가 이윤창출 기회를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형태가 새로운 기업의 형성이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의 개념적 정의는 ‘기회’이지만 실제 다수 연구는 조작적 정의로 ‘기업의 형성’을 설정하고 있고, ‘창업’이나 ‘신생기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김도현 등, 2017). Gartner 등(2010) 역시 기업가적 행위(entrepreneurial behavior)는 기존 조직을 운영하거나 변경하려는 개인의 활동 보다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개인의 활동, 즉 창업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Shane(2012)은 신생기업의 창출은 기업가정신 개념의 일부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신생기업 창출 이외에도 다양한 조직적 방식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2) 기업가정신 연구 경향 추이

학문분야로서의 기업가정신 연구는 경제발전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한 Schumpeter를 기원으로 하고 있고, 과거에는 주로 개인 기업가의 특성과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Alvedalen and Boschma, 2017; Aoyama 등, 2011; Shane and Venkatraman, 2000). 그러나 학술적 차원의 연구는 1970~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특히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독립적 연구 분야로 정립된 것은 199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김영환·양태용, 2013). Low and Macmillan(1988)은 기업가정신 연구 방향을 크게 기업가적 프로세스(entrepreneurial process)와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으로 나누었다. 기업가적 프로세스 연구에는 기업이 개인에 대한 것부터 창업기업의 단계별 성장 과정, 기업 내부 및 외부 사업 환경

등이 포함되는데, 기업가가 변화의 행위자이고 기업가정신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Audretsch and Keilbach, 2004). 초기 연구들은 기업가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개인차에 따라 기업가정신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지만, 이후 기업가정신을 창업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Aoyama 등, 2011). 사회적 맥락 연구에는 창업 환경 및 생태계, 지원 시스템, 기업가정신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데, 기업가 개인의 특성보다 기업가정신이 발현되는 지역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가정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정책적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Aoyama 등, 2011). 이러한 장소로서의 맥락(context-as-place)에 대한 관심은 이후 시스템 및 생태계 사고의 토대가 되었다.

김영환-양태용(2013)은 시기별 연구경향을 정리하면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기업가 개인적 특성에 대한 탐구,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매개체(수단)로서의 초기 기업의 조직적 특성으로 관심이 옮겨졌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구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환경 및 하부구조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관심이 확대되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기업가정신 전문 유명 국제 학술지¹⁾의 2000년대 이후 연구경향을 분석해보면, 연구 초점이 기업 내부 환경에서 외부 사업 환경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업가정신 × 공간경제 연구

경영학 분야의 기업가정신 이론에서는 지리가 기업가적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리 그 자체가 기회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새로운 시장의 잠재력이 된다고 보았다(Plummer and Pe'er, 2010). 예를 들어 주어진 자원이 다른 시간이나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입지에서 팔린다면 이것이 기업가적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hane and Venkatraman, 2000).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장에 기존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기업가정신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지리적 시장 확장이 단순히 새로운 맥락에서 성공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의 고객과 경쟁자에 대한 급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밀도가 높으면 지식과 정보의 이전이 잘 이루어지고 기업가정신의 롤모델 수가 증가하여 관찰 기회가 증가하고 개인의 학습이 증진되기 때문에 도시화가 기업가적 기회의 원천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Plummer and Pe'er, 2010).

지리학과 공간경제 분야에서 기업가정신 연구를 살펴보면, Aoyama 등(2011)은 경제지리학의 핵심개념 중 하나로 기업가정신을 거론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인 기업가정신이 혁신의 엔진이자 지역성장과 경제변화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주로 기업가, 기업가적 기회, 그리고 신생벤처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거나 스타트업 이후의 성장 및 성과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Mack, 2016; Plummer and Pe'er, 2010). 예를 들면, 기업가들은 기존에 근무했거나 익숙한 입지에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경향이 있고, 동일 업종 기업에서 일하다가 스피노프 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도 지역 기관과의 로컬 연계가 있고 익숙한 환경 요인으로 인해 기존 입지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Saxenian, 1994, Plummer and Pe'er, 2010). 사실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업을 시작할 때까지, 또는 기업가적 활동에 참여할 때까지는 관찰되기가 어렵고, 따라서 기업가가 기업가적 기회를 탐색하고 신생벤처를 창출하는 과정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겹쳐진다. 이에 기술전문지식, 벤처캐피탈과 같이 기업가들이 기회를 개발할 때 필요한 자원들의 공간적 분포를 대리변수로 삼아 연구하기도 한다(Stuart and Sorenson, 2003). 기업가적 기회의 공간분포 연구의 예를 살펴보면, 혁신, 지식과 지식창출 활동의 공간 분포에 초점을 두거나, 창출된 지식이

해당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리적으로 제한된다는 연구들, 동일 산업과 기존기업의 집적이 신생벤처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등이 있다. 스타트업 이후의 성과 분석에서는 클러스터와 집적이 이점으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연구들이 있는데(Plummer and Pe'er, 2010), 클러스터에서 신생기업의 성과가 더 크지만 그만큼 실패 위험도 높다는 역설적 분석도 있다(McCann and Folta, 2008). 이와 같이 기존 지리학이나 공간경제 분야에서의 기업가정신 연구는 입지와 공간적 분포, 집적의 정도에 대한 분석에 한정되었고, 결국 기업가정신의 지리(geography of entrepreneurship) 맥락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지리학과 관련 분야에서도 창업, 신생기업 등에 대한 분석은 많으나, 기업가정신 그 자체를 학술적으로 강조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김학수·임규진, 2010; 신혜원·김의준, 2014; 전봉경, 2020).

Plummer and Pe'er(2010)은 경영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업가정신 연구와 공간경제 연구를 상호연결하고 통합하는 두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지리를 국지적 맥락의 대리변수로 간주하는 것으로, 기업가정신 프로세스 자체는 비공간적이지만 그 형태, 기능, 결과가 공간적·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둘째는 기업가와 기업가적 활동 그 자체가 공간적 프로세스라고 보는 관점이다. 후자의 관점은 EE 연구의 이론적 기반과 긴밀히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 Plummer and Pe'er(2010)은 EE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업가정신의 공간이론을 확립하고 미시적 공간단위에서부터 이론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경영학 기반의 기업가정신 연구가 과거 개인적 특성에서 점점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EE의 지역적·공간적 맥락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지리학과 공간경제 분야에서는 기업가정신(창업) 자체가 공간적 프로세스라는 관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3. Entrepreneurial Ecosystems의 정의

Entrepreneurial Ecosystems의 국문 표현을 살펴보면 기업가정신과 유사한 문제에 봉착한다. 여러 연구에서 벤처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 창업 생태계(곽혜진·이무원, 2018; 문미성, 2019; 윤지훈 외, 2017; 이정우 외, 2018; 채지민·이원호, 2017), 혁신 창업 생태계(김영환·김지은, 2020; 이정우 외, 2018), 기업가정신 생태계(박재환 외, 2017), 기업가적 생태계(김영환·김지은, 2020) 등으로 칭하고 있다. 벤처 생태계나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명칭은 창업기업의 혁신성을 드러내고 구체적인 대상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어서 정책 보고서 등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기업가정신의 폭넓은 관점을 모두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창업 생태계는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신생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점에서 더 광범위하지만,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고 기업가정신이 반드시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김영환·김지은(2020)이 사용한 혁신 창업 생태계라는 용어가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초점과 분석 대상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위의 한계점들을 공유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생태계라는 표현은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이라는 표현 자체의 한계가 있다. 기업가적 생태계 역시 유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더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본래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원문 표기 그대로 Entrepreneurial Ecosystems, 줄여서 EE로 표현하고자 한다.

EE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기업가적 시스템(entrepreneurial system), 기업가정신 하부구조(infrastructure for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

신 환경(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등 유사한 개념들이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지역 성장에 있어서 혁신적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를 증진시키는 환경인 EE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분석할 것인지, 또한 향후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리뷰 논문들도 많았다(Alvedalen and Boschma, 2017; Cao and Shi, 2021; Cavallo 등, 2019; Hakala 등, 2020; Maroufkhani 등, 2018; Wurth 등, 2021). EE 개념을 학술적으로 다룬 국내 사례 논문이 아직 많지 않는데, Jung 등(2017)은 전국 17개 창의경제혁신센터를 정부주도 EE로 간주하고 유형화 했지만 EE의 핵심 개념을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1) 시스템에서 생태계로

EE 개념은 기업가정신의 시스템 관점과의 연장선 상에서 등장했다(Cavallo 등, 2019). 기업가적 시스템은 시스템 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국가·지역 내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Alvedalen and Boschma, 2017).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과 유사한 맥락에서 국가 기업가정신 시스템(National Systems of Entrepreneurship)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국가 단위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시스템적 분석을 통해 국가별 차이를 밝히고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Acs 등, 2014).

EE는 기업가정신을 시스템으로 보는 것에서 진화하여 생물학적·생태적 관점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생태계 용어가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생물학에서 유래한 생태계는 '여러 객체(행위자)를 유지하는 복잡계'를 의미하며 경영학자 Moore가 이를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 개념으로 발전시켰다(Cavallo 등, 2019). 이후 대학기반 생태계, 산업 생태계, 조직 생태계, 혁신 생태계, 기술 생태계 등 '생태계'를 이용한 용어가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었다. 비즈

니스 생태계는 주로 단일 산업에서 핵심 기업이 생태계를 조율하는 특성을 보이고, 혁신 생태계는 가치사슬에 초점을 두면서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반면에 EE는 새로운 벤처의 창출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 자체가 지리적 관점을 가진다(Cavallo 등, 2019; O'Connor 등, 2018). Sorenson(2017)은 기업가정신의 지역 생태(regional ecologies of entrepreneurship)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생태학적 렌즈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avallo 등(2019)은 가치사슬과 같은 기존의 선형모델이 아닌, 다층적 상호의존성이 나타나는 환경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행위자 간의 비즈니스 활동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생태계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강조하였다. Mason and Brown(2014)은 EE의 생태적 접근을 지역 경제 발전의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하며 'economic gardening'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2) EE 정의 및 핵심 개념

EE는 Cohen(2006: 2~3)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전체 행위자 그룹의, 그리고 잠재적으로 경제 전체의 형성과 궁극적인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의 다양한 상호의존적 행위자들"로 정의했다. 물론 이전에도 기업가가 어떻게 다른 행위자나 맥락적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성공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EE 연구에 이르러 사회적 맥락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즉 특정 장소의 커뮤니티나 문화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기업가나 정책가가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것이다(Stam and Spigel, 2016).

여러 문헌에서 널리 인용되는 EE 정의 중 하나는 Stam(2015: 1765)의 정의로 "생산적 기업가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일련의 상호의존적 행위자와 요인들(a set of interdependent actors and factors coordinated in such a way that they

표 1. 주요 논문의 EE 정의 및 개념

저자	출처	논문제목	정의 및 개념 (EE=기업가적 생태계)
Cohen (2006)	<i>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i>	Sustainable valley entrepreneurial ecosystems	EE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벤처의 지원과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로컬 지역 커뮤니티에서 상호 연결된 행위자 그룹. EE는 전체 행위자 그룹의, 그리고 잠재적으로 경제 전체의 형성과 궁극적인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의 다양한 상호의존적 행위자들을 나타냄. E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벤처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상호의존적 구성요소를 통해 진화함.
Isenberg (2010)	<i>Harvard Business Review</i>	How to start an entrepreneurial revolution	EE는 리더십, 문화, 자본 시장, 열린 마음을 가진 고객과 같은 개별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됨. 이러한 요소를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해 9가지 원칙이 제안됨. 1) 실리콘밸리 모방 중단, 2) 지역 조건을 중심으로 생태계 형성, 3) 처음부터 민간 부문 참여, 4) 큰 잠재력 가진 스타트업, 5) 큰 성공 홍보, 6) 문화적 변화에 대처, 7) 신생 벤처의 강한 근간을 위한 신중한 자금지원, 8) 클러스터를 과도하게 구축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9) 법적, 관료적, 규제적 틀 개혁
Feld (2012)	<i>Startup communities: Build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your City</i>	-	EE의 4가지 원칙: 1) 기업가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이끌어야 함, 2) 리더들은 장기적인 헌신을 해야 함, 3) 스타트업 커뮤니티에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4)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전체 기업가적 축적을 연계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함.
Qian 등 (2013)	<i>Journal of Economic Geography</i>	Regional systems of entrepreneurship: the nexus of human capital, knowledge and new firm formation	지역 기업가정신 시스템(regional systems of entrepreneurship)은 기업가적 기회의 창출, 발견 및 활용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및 기타 모든 중요한 요인들을 의미함.
Mason and Brown (2014)	background paper for workshop organized by the OECD LEED Programme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growth oriented entrepreneurship	EE는 상호연결된 일련의 기업가적 행위자(잠재적이거나 기존 모두), 기업가적 조직(예: 기업, 벤처캐피털, 비즈니스엔젤, 은행), 기관(대학, 공공부문 기관, 금융기관) 및 기업가적 프로세스(예: 비즈니스 창업률, 고성장 기업의 수, '블록버스터 기업가정신'의 수준, 연속적 기업가 수, 기업 내 매각 사고방식의 정도 및 기업가적 야망 수준)로, 로컬 기업가적 환경 내에서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결합하여 성과를 연결, 조정 및 통제함.
Acs 등 (2014)	<i>Research Policy</i>	National systems of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	국가 기업가정신 시스템(National Systems of Entrepreneurship)은 개인들에 의한 기업가적 태도, 능력 및 열망 간의 역동적이고 제도적으로 착근된 상호작용으로, 신생 벤처의 창출 및 운영을 통해 자원 할당을 주도함.

저자	출처	논문제목	정의 및 개념 (EE=기업가적 생태계)
Stam (2015)	<i>European Planning Studies</i>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policy: a sympathetic critique	EE는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일련의 상호의존적 행위자와 요인. EE 개념은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의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함. 기업가, 리더십, 금융, 인재, 지식 및 지원 서비스의 네트워크와 같은 시스템적 조건은 생태계의 핵심이고, 이러한 요소의 존재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생태계의 성공을 결정함.
Stam and Spigel (2016)	<i>The SAGE Handbook of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i>	Entrepreneurial ecosystems	EE는 특정 영역 내에서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일련의 상호의존적 행위자와 요인.
Spigel (2017a)	<i>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i>	The relational organiza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EE는 혁신적 스타트업의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고 초기 기업가나 기타 행위자가 위험이 높은 벤처를 시작하고, 자금 조달 및 지원하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독려하는 지역 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요소의 조합.
Cao and Shi (2021)	<i>Small Business Economics</i>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EE는 지역 내에서 신생벤처 창출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 진화하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커뮤니티

enable productive entrepreneurship)이다. 이 논문에서도 지역과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연이은 Stam and Spigel(2016)에서는 기존의 정의의 마지막에 “특정 영역 내에서(within particular territory)”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지역이나 장소에서 나타나는 커뮤니티 속성을 부각시켰고, 이 개념이 여러 연구에서 통용되고 있다. Spigel(2017a)은 이어지는 연구에서 혁신적 스타트업의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고 초기 기업가나 여타 행위자가 위험을 감수하며 벤처를 시작할 수 있게 독려하는 지역 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요소의 조합이 EE의 핵심임을 부연하였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EE의 정의와 핵심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많이 인용되는 주요 논문을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90년대~2000년대까지 초기 EE 관련 연구에서는 대체로 1) 행위자와 구성요소의 상호작용과 2) 새로운 벤처의 창출이 중요했으나, Cavallo 등(2019)²⁾은 Stam and Spigel(2016), Spigel(2017a)의 정의에 이르러 ‘생산적(productive)’ 차원과 ‘영역적(territory)’

차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다음 4장에서는 EE의 핵심 개념을 ‘actors and factors’, ‘productive’, ‘territory’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Entrepreneurial Ecosystems 핵심 개념 분석

1) ‘actors and factors’: 행위자와 요인

(1) 기존 연구의 구성요소 고찰

신생기업 창출은 여러 가지 행위자(actor)와 요인(factor)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가적 생태계 정의에서 구성 행위자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중요하게 거론된다. 특히 EE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은 EE 연구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Alvadalen and Boschma, 2017; Cavallo 등, 2019).

EE 구성요소와 관련된 초기 연구로서 Isenberg (2010)는 EE를 창출하기 위한 9가지 처방을 제시하였다. 국지적 상황과 상향식 프로세스의 역할을 강조하며, 1) 실리콘밸리 모방을 중단하고, 2) 지역 조건에 맞는 생태계를 형성할 것, 3) 초기부터 민간 부문 참여가 중요하고, 4) 신생 벤처가 강인한 뿌리를 가질 수 있게 자금지원을 신중히 할 것, 5) 과도하게 클러스터를 구축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에 초점을 두고, 6)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중요시하고, 7) 큰 성공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거론하였다. 제도적 초점에서는 8) 문화적 변화에 대처하고, 9) 법적, 관료적, 규제적 틀 개혁을 제시하였다. 이 9가지는 이후의 EE 구성요소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Isenberg (2011)는 연이어 EE의 6가지 요소를 정책(policy), 금융(finance), 문화(culture), 지원(support), 인적 자본(human capital), 시장(market)으로 제시하였다. Feld(2012)는 성공적인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9가지 속성을 리더십(leadership), 중개자(intermediaries), 네트워크 밀도(network density), 정부(government), 인재(talent), 지원서비스(support services), 참여모임(engagement), 기업(companies),

자본(capital)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Stam(2015)의 EE 도식화는 여러 연구에서 인용되는데, 여기에서 EE의 구성요소를 구조적 조건과 시스템 조건으로 나누었다. 구조적 조건에는 공식·비공식 제도와 문화 같은 사회적 조건과 물리적 하부구조, 시장 수요가 포함된다. 시스템 조건은 EE의 핵심으로 기업가 네트워크, 리더십, 금융, 인재, 지식, 지원서비스로 구성되고, 이들의 상호작용은 EE 성공의 열쇠가 된다. Spigel(2017a)은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문화적(cultural), 사회적(social), 물리적(material)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문화적 속성에는 1) 기업가적 활동, 위험감수, 혁신을 지지하는 문화(supportive culture)와 2) 지역에 유명한 성공 벤처기업이 있는지와 같은 기업가정신의 역사(histories of entrepreneurship)가 포함된다. 사회적 속성에는 3) 스타트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력(worker talent)의 존재, 4) 투자 자본(investment capital)의 이용가능성, 5) 기업가, 조인자, 투자자, 인력 등을 연결하는 사회적 네트워크(networks)의 존재, 6) 젊은 기업가들의 멘토나 롤모델이 되는 성공적 기업가(mentors and role models)의 존재가 포함된다. 물리적 속성에는 7) 자금지원, 규제개혁 등 정책 프로그램(policy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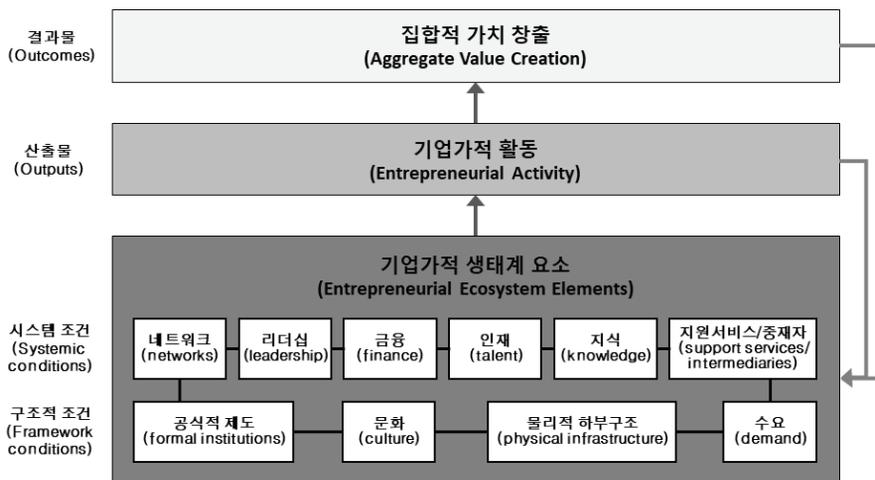


그림 1. 기업가적 생태계의 핵심 요소, 산출물, 결과물

출처: Stam, 2015, p.1765.

governance), 8) 기업가를 교육시키고 지식 스피어 버를 창출하는 대학과 고등교육기관(universities), 9) 특허, 회계, 인큐베이터 등 신생 벤처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기업과 기관(supportive services), 10) 사무실, 정보통신, 교통 등 물리적 하부구조(physical infrastructure), 11) 벤처 창출 및 글로벌 시장 접근이 가능한 시장 기회(open markets)가 있다.

(2) 개인적·조직적·제도적 구성요소와 네트워크·커뮤니티의 중요성

Alvadalen and Boschma(2017)는 EE의 성공여부가 개인, 조직 및 제도의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달려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

지는 기업가적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Mason and Brown(2014) 역시 EE의 정의에서 기업가적 행위자(actors), 기업, 벤처투자자, 엔젤투자자, 은행 등 기업가적 조직(organization), 그리고 대학,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기관·제도(institution)와 창업률, 고성장기업 수, 연속 창업자수 등의 기업가적 프로세스(process)가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EE를 구성하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tam(2015)의 도식화를 기반으로, Alvadalen and Boschma(2017), Mason and Brown(2014) 등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한 EE 요소들을 종합하여 그림 2와 같이 도식화 했다. 여기에서 EE의 개별 요소들을 개인적(individual)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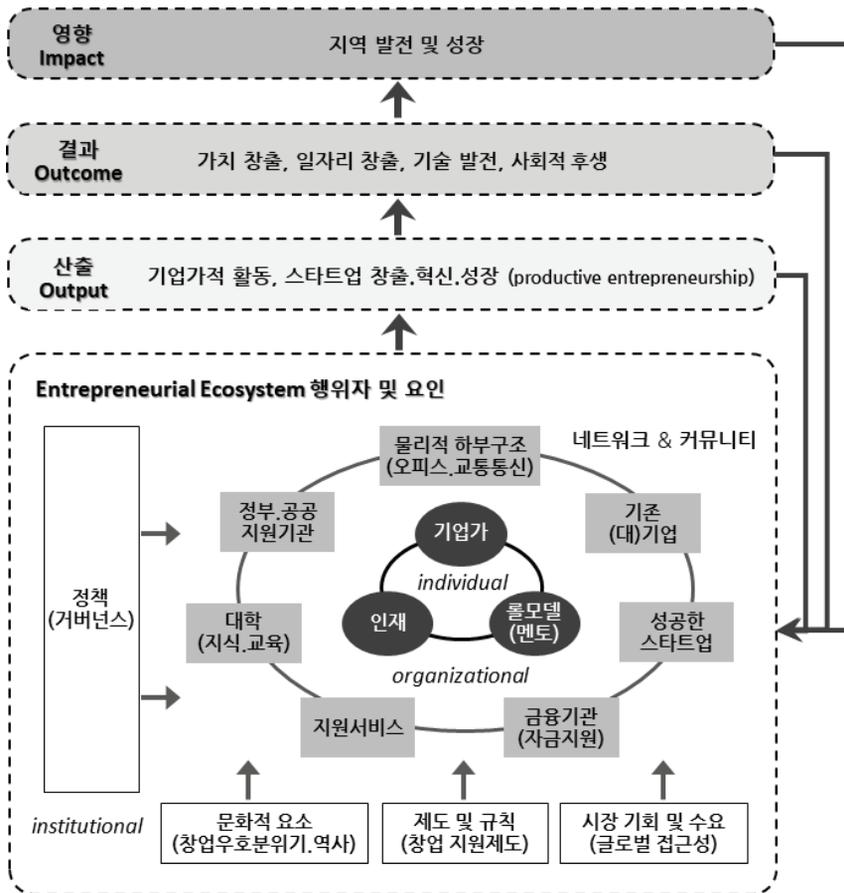


그림 2. EE 구성요소와 프로세스 분석 도식화

원, 조직적(organizational) 차원, 제도적(institutional)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업가, 인재, 롤모델(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여러 연구들에서 EE를 조성하는데 있어 기업가의 참여가 핵심임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기업가 개인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는 조직과 제도를 중요시 하는 반면에 EE 개념은 기업 못지않게 기업가를 중요하게 다룬다(Acs 등, 2014; Cavallo 등, 2019). 창업을 하는 기업가 뿐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직원 등 인재 역시 필수 요소이다. 또한 EE는 누적적 인과로서 기업가정신의 역동적인 로컬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롤모델, 즉 지역에 성공한 기업가가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Malecki, 2018). 다른 연구에서 역시 다른 사람의 성공을 관찰해야 창업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성공한 기업가가 있는 지역에서 많은 기업가가 탄생한다고 설명하였다(Plummer and Pe'er, 2010).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연속적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기업가들은 롤모델로서 기업가적 성공의 본보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아가 다른 창업가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엔젤 또는 벤처자본가로서 투자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역에 성공한 롤모델의 존재하고, 조언과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다시 실질적 재투자로 이어지는 멘토십이 지역에서 작동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지역 간 창업 환경, 기업가적 문화의 핵심적 차별 요소가 된다(Malecki, 2018; Spigel, 2017b).

조직적 차원의 구성요소에는 정부 및 공공지원기관, 대학, 지원서비스, 금융기관, 성공한 스타트업, 기존 (대)기업, 물리적 하부구조 등이 있다. 특히 성공한 스타트업과 기존 (대)기업이 로컬 생태계에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pigel and Vinodrai(2021)은 사람, 자본, 아이디어가 EE 내에서 재순환 하는 것이 고성장 기업가정신의 핵심 프로세스임을 밝혔다. 여러 연구에서 이를 ‘기업가적 재순환(entrepreneurial recycling)’으로 칭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는데(Brown

and Mason, 2017; Malecki, 2018; Wurth 등, 2021), 이를 통해 지역 생태계에서 또 다른 스타트업이 창출된다고 보았다. 특히 기존 기업의 성공적인 출구/매각(exit) 혹은 실패 이후에 해당 기업을 떠난 유능한 인재들이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거나 기존 스케일업 기업에서 다시 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Spigel and Vinodrai(2021)은 캐나다 온타리오 Waterloo의 Blackberry 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하였고, Wallin 등(2016)과 Simonen 등(2020)은 핀란드에서 Nokia 발충격 이후에 기존 기업에서 일하던 기술 인력들이 스타트업 창출과 지역 구조재편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을 분석하였다. 한편 Jung 등(2017)은 한국의 정부주도 EE를 분석하면서 기존 대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즉 지역 내에서 앵커의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존재, 이들의 성공 뿐 아니라 실패 역시 EE 형성과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창업에 우호적인 분위기나 기업가정신의 역사와 같은 문화적 요소, 창업 지원 제도나 규칙, 글로벌 접근성을 포함한 시장 기회나 수요 등이 중요하다. Saxenian(1994)의 유명한 연구인 실리콘밸리와 Route128 지역의 비교는 비즈니스 관행, 규범, 신념 등과 같은 독특한 문화적 요소의 조합이 기업가정신의 역동성을 유발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밝혔다. Aoyama(2009)는 일본의 Hamamatsu와 Tokyo 두 지역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개방성 등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어떻게 IT산업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켰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EE의 기업가적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 연구는 Brown and Mason(2017), Sorenson(2017), Spigel(2017b), Vedula and Kim(2019)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EE 조성과 성공을 위한 거버넌스와 정책 역시 강조된다. 그러나 EE 개념의 기본 바탕에는 인위적이고 지나친 정책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기업가와 스타트업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Isenberg, 2010). 한편 이것

은 미국과 유럽의 기업가정신 연구경향 차이와도 관련되는데, 미국이 개인적이고 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비해 유럽은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김영환·양태용, 2013). 특히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기업가의 혁신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정책적 역할과 적용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적, 조직적, 제도적 요소들의 상호연결과 네트워크, 이를 통한 커뮤니티의 형성은 EE의 핵심이자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그 구성요소나 성분에는 관심을 두지만 정작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세스나 결합 방식은 크게 다루지 못했다(Malecki, 2018). 그동안 기업가정신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전체론적 접근방식이 부족했고 이에 대한 분석틀이나 프로세스의 실증이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Cao and Shi, 2021; Malecki, 2018).

2) 'productive': 생산적 기업가정신

(1)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그림 1과 같이 EE에서 여러 구성요소들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통한 산출물(output)은 기업가적 활동, 즉 스타트업의 창출, 혁신 및 성장이다. Stam (2015)과 Stam and Spigel(2016) 뿐 아니라 여러 연구들에서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활동을 EE의 산출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생산적 기업가정신(productive entrepreneurship)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2). 여기에서 '생산적'이라는 것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EE가 일반적인 창업보다는 혁신적인 고성장 신생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Cavallo 등, 2019; Content 등, 2020; Nicotra 등, 2018; Mason and Brown, 2014; Stam, 2015; Stam and van de Ven, 2021; Wurth 등, 2021). Mason and Brown(2014)과 Stam(2015)은

EE가 창업 중에서도 '고성장 스타트업(high-growth start-ups)'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혁신, 생산성 향상 및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임을 강조하였다. Cavallo 등(2019) 역시 EE가 혁신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생산적 기업가정신은 경제 성장 기여도가 큰 고도로 잘 구축된 EE(high-quality EE)에서의 기업가적 활동을 의미하고, 이러한 EE에서는 더 많은 생산적 기업가정신이나 혁신 스타트업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Content 등, 2020).

그러나 생산적 기업가정신은 반드시 급격한 성장성에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혁신 창업이나 기업가적 성향을 가진 직원 역시 포함한다. 심지어 실패한 기업도 포함되는데 이들이 다른 벤처나 스타트업,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Stam, 2015). 특히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과 같은 일부 엘리트 그룹 스타트업에만 집중하는 것은 EE의 큰 그림을 놓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가의 의도(intention)가 기업가적 활동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라는 전제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야심찬 기업가(ambitious entrepreneur)가 주도하는 기업'에 초점을 두고 고성장 스타트업이나 스케일업을 고찰하기도 한다(Cavallo 등, 2019; Mason and Brown, 2014; Stam and Spigel, 2016). 다만 확실한 것은 EE가 생계형 창업이나 자영업 또는 소상공업 등과 같은 넓은 의미의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을 포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Cavallo 등, 2019; Stam, 2015).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가정신과 구분하여 혁신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

(2) entrepreneurship의 범위와 측정

생산적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 기업가정신의 범위와 측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가

정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주요 논쟁은 기업가정신의 대상을 모든 창업으로 볼 것이냐, 혁신창업으로 한정할 것이냐이다(Aoyama 등, 2011; Acs 등, 2014; Koo and Yoo, 2016; Szerb 등, 2019; Wurth 등, 2021).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신생기업을 기업가정신의 결과로 보는 관점과 급격히 성장하는 혁신적인 신생기업으로만 한정해야 된다는 관점이다.

전자에는 자영업 비율, 신생기업 창출(창업률) 지표,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³⁾의 총 초기 기업가적 활동(TEA: total early-phased entrepreneurial activity) 지표 등이 포함된다(Audretsch and Keilbach, 2004; Szerb 등, 2019; Content 등, 2020). Audretsch and Keilbach(2004)는 기업가정신 지표로 총인구 대비 신생기업 수를 계산하기도 하였다. GEM의 TEA는 조사대상 일반 성인 중 42개월 미만의 창업가 비중을 나타내는데, 기업가적 활동의 대표 지표로 다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Block 등, 2017; Content 등, 2020). GEM은 이 외에도 더 세부적인 지표를 이용해 기업가정신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TEA의 경우에도 다시 창업~3개월까지의 초기 기업가와 3개월~42개월(3년6개월)까지의 신규 기업가로 나누기도 한다.

후자의 관점은 다른 기업의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모방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적 활동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혁신적 신생기업을 자본주의 필수요소인 '창조적 파괴'의 핵심으로 여기는 Schumpeter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기업가가 만들어 내는 새로움이 기업가적 과정의 핵심이고, 대기업의 관료주의를 소기업의 기업가정신의 대척점으로 보았다. 앞에서 설명한 TEA의 세부 지표에서는 창업(기업가적) 활동을 기회추구형(opportunity-motivated)과 생계형(necessity-motivated)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고자 창업을 선택한 비율을 기회추구형으로, 별다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이 창업을 선택한 비율을 생계형으로 측정한다. Content 등(2020)에서는 이 기회추구형 TEA를 혁신창업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Audretsch and Keilbach(2004)는 혁신활동 스타트업 분석을 위해, 전체 신생기업과 별개로 하이테크 제조 스타트업(R&D 비중 2.5% 이상)이나 ICT부문 스타트업으로 한정해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기회추구형 창업, 혁신창업, 혁신형 창업, 기술(기반)창업, 기술혁신형 창업 등의 용어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정우 외, 2018). 또한 혁신적 고성장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스타트업 중에서도 유니콘 기업의 수로 EE 성과를 측정하기도 한다(Acs 등, 2017).

이러한 두가지 논쟁을 기업가정신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Stam, 2015; Szerb 등, 2019). Stam(2015)은 기업가정신의 양적 측면은 신생기업 및 자영업 창출로, 질적 측면은 신생기업의 성장 및 혁신창업으로 볼 수 있고, 정책 측면에서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Szerb 등(2019)은 양적측면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이자 기업가정신 연구로 유명한 Kirzner의 이름을 따서 Kirzner 기업가정신(Kirznerian entrepreneurship)으로, 질적 측면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강조한 Schumpeter의 이름을 따서 Schumpeter 기업가정신(Schumpeterian entrepreneurship)으로 칭했다. Kirzner 기업가정신은 기존 대비 신생 비즈니스 비율로 상대적 스타트업 비율을 나타내고, (신생기업 수/기존기업 수)로 계산한 반면, Schumpeter 기업가정신은 기존 대비 신생 비즈니스의 상대적 혁신성(innovativeness)을 의미하고 (신생기업의 혁신성/기존기업의 혁신성)으로 계산하였다. 여기에서 혁신성은 GEM 기반 변수들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는데, 신상품이나 기술의 새로움 정도, 산업부문의 기술수준을 반영하였다. 신생기업과 기존기업의 구분은 시장 진출 18개월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들이 기업가적 과정(process)

과 사회적 환경(context)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성과 차원과 결정요인 차원의 변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창업에 치중하면서 근본적인 기업가정신에 대한 접근에는 미흡했다는 문제도 있다(이정우 외, 2018). 창업보다는 신생기업의 생존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등장하기도 했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회적 조직의 복잡성을 살펴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Cavallo 등, 2019).

3) 'territory': 지역성 · 공간성

(1) EE의 지역성과 공간단위

Malecki(2018: 7)는 “EE는 근본적으로 공간적이고, 핵심적으로 국지적인 개념(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is a concept that is fundamentally spatial - and centrally local)”이라고 표현하며 공간성과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결국은 앞에서 제시된 구성요소들이 국지적, 지역적, 또는 국가적 공간단위의 특정 영역에서 어떻게 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 창업을 증진시키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이것은 기업가정신과 EE 그 자체가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프로세스(“entrepreneurship as an inherently spatial process”(Plummer and Pe'er, 2010: 522), “entrepreneurial ecosystems as an inherently geographic perspective”(O'Connor, 2018: 5))라는 맥락과 연결된다.

EE에서는 기업이 개인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 특히 이것이 작동되는 지역과 공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Cavallo 등(2019)은 이에 대해 기업가정신 연구의 초점이 기업가에서 특정한 사회적 및 국지적 맥락에 착근된 프로세스로 이동했다고 설명하였다. 특정 영역에서 개인적·집합적 학습이 기업 간 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이것을 지원하는 제도적 요소가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 입지가 중요하게 된다. 물론 디지털화와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신생벤처가 추구하

는 기업가적 기회의 발생이 반드시 국지적이지는 않고 클러스터 외부에 기인할 수도 있다(Cao and Shi, 2021; Cavallo 등, 2019). 또한 국지적 지역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이 글로벌하게 스케일업 하고, 글로벌에서 로컬로 가치를 가져오는 흐름과 사이클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EE 연구자들은 기업가정신의 국지적 측면을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Audretsch 등, 2012; Cavallo 등, 2019; Erina 등, 2017; Kibler, 2013).

4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E 구성요소의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업가와 멘토의 존재와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대학,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원서비스 등의 존재 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기업가적 재순환 활동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창업에 우호적인 문화와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구성요소의 상호작용 프로세스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Spigel(2017b)은 캐나다의 두 지역, Waterloo와 Ottawa에서 기술 스타트업의 멘토십 문화 차이를 비교했다. Waterloo는 Blackberry를 필두로 기술 스타트업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성장했는데 여기에 University of Waterloo와 로컬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는 Communitech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곳 기업가와 스타트업들은 사회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험있는 투자자나 기업가들을 멘토로 찾고 또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자발적 ‘선행(pay-it-forward)’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고 지역의 상징적 가치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즉 비공식적 사회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동했으며 대학과 기관들의 프로그램이 이를 뒷받침했다. 반면 Ottawa는 캐나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지역으로 연방 연구기관과 University of Ottawa를 중심으로 기술 스타트업과 스피어아웃을 지원하는 정보통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Ottawa에서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들을 멘토로 삼는데, 멘토십이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가적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기업가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멘토링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들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졌던 지역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EE 문헌에서 이것이 작동하고 발현되는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 영역의 지리적 공간단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먼저, 국가단위에서 EE를 고찰하는 것은 1990년대~2000년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국가혁신시스템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국가혁신시스템은 혁신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국가 단위의 제도와 구조에 초점을 두었지만, 개인의 행위성(agency)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었다(Acs 등, 2014). 이에 기업가정신과 개인의 행위성이 국가의 혁신을 추동한다는 문제의식이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기존의 기업가정신 문헌은 시스템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개인 기업가의 특성이나 신생기업의 창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Acs 등(2014)은 국가 기업가정신 시스템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기업가적 행위를 창출하고 행위의 결과를 규정하는데 있어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제도적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단위에서 기업가정신의 특성과 결과를 측정하는 것에 주력하는데 GEM이 대표적으로 이 개념에 기반을 둔 것이다. 주로 기업가정신의 국가 간 차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있다. 한편 Cao and Shi(2021)는 기존의 미국, 유럽 선진국 중심의 EE 이론과 달리 신흥경제국에서는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독려하는 제도의 결여, EE를 구성하는 자원의 부족, 혁신창업 지원 기관 부족 등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맥락에서 분석과 정책 제시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EE와 기업가적 활동의 분석단위로서 지역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EE가 처음 등장한 Cohen(2006)의 연구는 캐나다의 Victoria를 사례로 하였고, 이와 같이 실제로 특정 지역별 생태계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EE가 이론화 되었다(Cavallo 등, 2019; Spigel, 2017b). 경제지리학자들 역시 창업, 특히 기술기반 혁신창업에 있어서 국가보다 하위 수준에서의 이론화와 분석을 주도하였다(Aoyama 등, 2011). EE의 행위자, 구성요소 및 요인이 대부분 국지적·공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네트워킹, 특히 기업가들의 네트워킹은 특정 장소에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중요하다. 캐나다 Ottawa와 Waterloo(Spigel, 2017b; Spigel and Vinodrai, 2021), 포르투갈 Porto(Loots 등, 2021), 오스트리아 Vienna(Radinger-Peer 등, 2018) 등 EE 사례 연구들에서 국지적 환경 및 문화, 지역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Malecki (2018)는 반경 50km 또는 100km 이내의 소규모 국가라면 국가 단위에서 EE를 탐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로컬 단위가 EE를 연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공간 단위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더 하위 공간단위로 대학 중심의 EE, 특정 기관이 주도하는 EE 등에 대한 연구도 있다. Miller and Acs(2017)가 시카고대학을 사례로 EE로서의 캠퍼스를 분석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 도시, 지역보다 더 작은 규모인 대학 캠퍼스가 인큐베이터나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고찰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 및 교원 창업을 증진시키고 기업가들을 지원하는지 밝혔다. 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EE에서는 대학을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보지만, 이 연구는 대학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로서 작용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학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Breznitz and Zhang(2019),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과 영국 에딘버러 대학을 비교한 Johnson 등(2019), 핀란드 대학을 사례로 한 Lahikainen 등(2019), 트리플 힐릭스 생태계를 분석한 Chinta and Sussan(2017)

등의 연구가 있다.

(2) 기존 공간경제 이론과의 차이점

EE 이전에도 클러스터 이론 등에서 특정 지역의 벤처나 스타트업의 집적과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심이 많았고, 신생벤처의 집적이 국지적임을 밝히는 분석들이 있었다(Cavallo 등, 2019). Pitelis (2012)는 여러 요인들로 일단 한 입지가 선정되면 생태계-클러스터(ecosystem-cluster)가 이미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사한 또는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다른 기업가들이 동일한 이유로 같은 입지를 선택하게 되거나, 또는 선구적인 기업가와 기업들이 지역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의 장점 때문에 클러스터가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실리콘밸리, 캠브리지, 대만 신주클러스터 등에서 이러한 기업가적 활동을 통해 클러스터가 창출되고 성장한 것이 드러났다. EE가 기존의 산업지구, 클러스터, 혁신체계 등 공간경제 이론을 계승하는 것인지, 이를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EE는 지역의 환경적 요소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과거의 이론들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Acs 등, 2017; O'Connor 등, 2018; Pitelis, 2012; Plummer and Pe'er, 2010). 그러나 기존 공간경제 이론들과의 차별화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Cao and Shi, 2021).

첫째, 기존의 클러스터 논의에서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에 비해 EE는 논의의 출발점을 '기업'이 아닌 '기업가'에 두고 있다(O'Connor 등, 2018; Pitelis, 2012; Stam, 2015). 기존 공간경제 이론에서 기업가의 역할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들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고 가치 창출이나 혁신의 더 큰 시스템 내에서의 일부 역할에 제한되었다(O'Connor 등, 2018). 기존 이론에서는 스타트업과 다른 조직과의 차별화보다는 지역의 경제·사회적 구조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고, 지역에 고성장 스타트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반면 EE에서는 혁신

적 기업가와 고성장 스타트업이 근간을 이루고 핵심적 역할을 한다. 즉, 다른 공간경제 이론과 달리 EE는 기업가정신을 시스템의 결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창출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있어 기업가를 핵심 플레이어이자 리더로 상정하고 있다(O'Connor 등, 2018).

둘째, 기존 클러스터 논의가 특정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개념인 것에 비해, EE는 다양한 산업부문의 스타트업이 중심이 된 개념이다(Cavallo 등, 2019; Pitelis, 2012). 산업지구나 클러스터는 대체로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협력적 생산과 가치사슬이 구축된 양상을 분석한다. 반면 EE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들이 혁신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것이 핵심이다(Cavallo 등, 2019; Stam and Spigel, 2016).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이론에서는 공식·비공식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지식공유, 지식스필 오버가 중요한데, 이것이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EE는 지역 내에서 특정 산업이나 기술보다는 새로운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generic business process)에 초점을 두고 있다(Cao and Shi, 2021). 이것은 상호작용 유형의 차이로 연결되는데, Cao and Shi(2021)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부분의 전통적 클러스터는 공간적으로 집중한 가치사슬로 구성되어 있어서 클러스터 내에서 수직적 네트워킹(vertical networking), 즉 가치사슬로 연결된 기업들 간에는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지만, 가치사슬 단계가 동일한 다른 기업들과는 수평적 경쟁(horizontal competition)이 나타난다. 한편 Uber나 Airbnb와 같이 타깃 시장이 다르고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서 혁신을 하는 경우에는 발전단계가 동일한 신생 벤처들 간에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EE에서는 동일 업종에 있지 않은 기업들 간에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려는 유인이 있으며, 반면에 모든 스타트업들은 태생적으로 동일 업종의 기존 기업들과는 경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 업종이 아닌 스타트업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킹(horizontal networking)과 동일 업종에 있는 기존 기업들과의 수직적 경쟁(vertical competi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왜 EE에서 액셀러레이터,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와 같은 장소들이 생겨나고 경험의 공유와 상호 멘토링을 강조하면서 기업가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킹과 협력이 가능한지를 설명해준다(Spigel, 2016).

셋째, 다른 정책적 접근과는 달리 EE에서는 기업가 정신 관련 정책의 민간화와 개인화를 강조하고 있다(O'Connor 등, 2018). EE에서는 기업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기존 공간 정책 담론보다 축소시키고 있다. 즉 정부는 EE 조성을 주도하거나 성장을 이끌어가는 선도자(leader)가 아닌, 생태계에서 자발적인 네트워킹과 커뮤니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feeder)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O'Connor 등, 2018; Stam, 2015). 이러한 사고는 Isenberg(2011) 등 EE의 초창기 이론부터 강조되었는데 EE가 정책에 의존적이지 않고 자립·자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EE는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원리와 함께 공공 리더십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적절히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업가들의 연계와 커뮤니티의 노력이 핵심 추동력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5. EE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시사점

학술적, 정책적 차원에서 EE가 주목받고 있지만 체계적 이론화와 실증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기존의 공간경제 이론들과의 차별화 되지 않고, 일부 연구에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Cao and Shi, 2021; Miller and Acs, 2017; Stam and Spigel, 2016). 또한 클러스터 이론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로컬 및 지역 차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시인지, 지역

인지, 국가인지의 영역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EE의 구성요소별로 명확한 역할이 제시되지 않고, 생태계에서 구축된 기업가정신이 어떻게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지에 대한 설명도 미비하다. 이와 같이 EE는 이론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EE의 정의와 개념적 모호성 문제가 있다. Stam(2015)은 EE가 성공적 기업가정신을 생산하는 시스템이고, 성공적 기업가가 많이 있는 곳에 좋은 EE가 있다는 식의 동어반복적 논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Isenberg(2011)는 개별 EE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EE 성공의 원인과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은 EE가 성공적 기업을 창출했을 수도 있으나 역으로 성공적 기업이 EE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와 결부된다. 이와 같이 EE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성공적 EE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지만 이것이 단순한 나열일 뿐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EE의 성장에 있어서 벤처캐피탈 등 환경요소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벤처캐피탈 등의 지원서비스가 성공한 스타트업의 활동을 따라가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Malecki, 2018). 마찬가지로 기업가적 문화가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가적 문화가 스타트업이나 기업가적 활동 집적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Cao and Shi, 2021).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모호함과 분석틀의 부재는 시스템 관점에서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EE를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Avedalen and Boschma, 2017; Cao and Shi, 2021).

또한 위의 논의와 연장선상에서 EE 연구가 시간 경과에 따른 진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EE 내 구성요소의 관계를 정적인 틀에서만 적용하는 한계가 제기된다. EE 구성요소와 상호작용을 단순히 스냅샷으로 보면 안 되고 시간에 따라 구성요소나 요소들의 관계

역시 변화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Spigel and Vinodrai, 2021). 그러나 EE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Sorenson(2017)은 지역에서 성공적 EE를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리는 반면에 지역의 창업률이나 혁신성장 스타트업 수는 단기간에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E의 진화적 관점에 대한 중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다(Mack and Mayer, 2016; Mason and Brown, 2014). 예를 들어 창출, 성장, 안정화/실패로 이어지는 신생 벤처의 생애주기 분석이나, EE 자체가 어떻게 창출, 성장, 지속가능한지,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떤 행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의 연구문제가 있을 수 있다(Cavallo 등, 2019).

한편, 기존의 EE가 미국과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이론화되었기 때문에 신흥경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다른 차원의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EE는 자발적 네트워킹과 과도한 정책개입을 지양하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기업가적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EE 조성이 어렵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식 격차, 자원 부족 등을 해외 투자 및 연계로 보완할 수 있고, 정책가들은 시장 및 시스템 실패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흥경제국에서 선진국 EE의 여러 성공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것을 디지털화로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디지털 변환이 스타트업의 창출과 성장, 가치획득에서 어떻게 기존과 다르게 작용하는지 신흥경제국 맥락에서 더 탐구되어야 한다(Cao and Shi, 2021).

본 연구는 EE의 정의와 핵심 개념에 대한 개괄적 설명에 그쳤지만, 앞으로 더 세부적인 이론화와 경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지리학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의 문화적 맥락의 연구들은 여전히 중요하고, 개인적·조직적·제도적 차원에서 유형의 구성요소 뿐 아니라 무형의 요인들이 더 탐구되어야 한다. EE 이론에 바탕을 두고 기업가들의 성향, 멘토십 관

계, 복잡미묘한 사회적 맥락과 같은 지역 문화가 어떻게 지식공유, 혁신, 네트워킹 프로세스를 통해 혁신창업에 기여하는지, 나아가 이들이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창업의 지리적·공간적 프로세스와 지역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

- 1) 김영환·양태용(2013)은 기업가정신을 다루는 주요 학술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는데, SSCI급 6개 저널은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이다.
- 2) 이 논문에서는 Stam(2015)의 정의를 인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논문에서 확인한 결과 “within particular territory”라는 표현이 부여된 것은 Stam and Spigel(2016)로 판단된다.
- 3) GEM은 1999년부터 런던경영대학교 밥슨칼리지가 매년 공동조사·발표하고 있는 지수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문가조사(National Expert Survey)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활동조사(Adult Population Survey)로 진행된다(박재환 외, 2017). 한국을 포함하여 6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가정신 조사로, 국가전문가조사에는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부지원, 공공 기업가정신프로그램, 창업교육 및 훈련, 하부구조, 문화·사회적 규범 등이 포함된다. 창업활동조사는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활동, 일자리 창출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TEA 지표가 대표적인데 이 지표를 바탕으로 기회/필요와 같은 창업동기, 신기술/고성장 비중 등의 다양한 부가지표를 구축한다(김영환·김지은, 2020). 한편 글로벌 기업가정신 및 발전 지수(GEDI: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dex)는 기업가정신 분야의 권위자인 Zoltan Acs와 Laszlo Szerb의 주도로 2011년부터 발표되는 지수로 GEM의 조사 모형을 따르고 있지만 기업가정신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기반하여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국가별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구성요소별로 분석하여 환경의 강

점 및 약점을 진단한다. 이것은 기업가정신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국가별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TEA가 기업가적 활동의 단기적 성장세를 나타내는 반면, GEDI는 질적인 장기적 성장을 나타낸다(박재환 외, 2017).

참고문헌

- 곽혜진·이무원, 2018, “한국과 중국 청두의 창업생태계 비교에 관한 연구: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5), pp.131-154.
- 김도현·김오형·박계현·이수용·임은찬·정동관·정수성·최민혜·최운수·황병호, 2017, “앙트러프러너십은 경영학과 다른 학문인가?,” 벤처창업연구 12(3), pp.1-36.
- 김영환·김지은, 2020,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사업(6차년도) 제1권: 한국의 혁신창업 생태계 성과 진단 및 대시보드 개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영환·양태용, 2013, “기업가정신 전문 유명 국제학술지 논문 검토를 통한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분석,” 중소기업연구 35(3), pp.347-376.
- 김학수·임규진, 2010, “지역별 기업가정신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pp.470-486.
- 문미성, 2019, “창업생태계의 개념과 공간적 함의,” 국토 456호, pp.6-10.
- 박재환·김봉문·김용태, 2017,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 요인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GETR(글로벌기업가정신트렌드리포트)자료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1), pp.23-30.
- 신혜원·김의준, 2014, “기업 입지유형 및 규모가 신생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 83, pp.17-30.
- 윤지훈·박지훈·배종태, 2017, “창업생태계가 소셜 벤처의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수동 소셜밸리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10(1), pp.91-134.
- 이정우·김선우·김영환·이윤준·백서인·권기환·모미령·정효정·이승재, 2018, 2018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혁신창업생태계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전봉경, 2020, “기업가적 정신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4), pp.395-407.
- 채지민·이원호, 2017, “기술창업 생태계 분석 및 구축 방안: 성남시 사례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1(1), pp.81-92.
- Acs, Z. J., Autio, E. and Szerb, L., 2014, “National systems of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 *Research Policy* 43, pp.476-494.
- Acs, Z. J., Stam, E., Audretsch, D. B. and O'Connor, A., 2017, “The lineages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approach,” *Small Business Economics* 49, pp.1-10.
- Alvedalen, J. and Boschma, R., 2017, “A critical review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research: towards a future research agenda,” *European Planning Studies* 25(6), pp.887-903.
- Aoyama, Y., 2009,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culture: the case of Hamamatsu and Kyoto, Japan,” *Regional Studies* 43(3), pp.495-512.
- Aoyama, Y., Murphy, J. T. and Hanson, S., 2011, “Entrepreneurship,” *Key Concepts in Economic Geography*, London: SAGE.
- Audretsch, D. B. and Keilbach, M., 2004, “Entrepreneurship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Regional Studies* 38(8), pp.949-959.
- Audretsch, D. B., Falck, O., Feldman, M. P. and Heblich, S., 2012, “Local entrepreneurship in context,” *Regional Studies* 46(3), pp.379-389.
- Block, J. H., Fisch, C. O. and van Praag, M., 2017, “The Schumpeterian entrepreneur: a review of the empirical evidence on the antecedents, behaviour and consequences of innovative entrepreneurship,” *Industry and Innovation* 24(1), pp.61-95.
- Breznitz, S. M. and Zhang, Q., 2019, “Fostering the growth of student start-ups from university accelerators: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perspective,”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8(4), pp.855-873.
- Brown, R. and Mason, C., 2017, “Looking inside the spiky bits: a critical review and conceptualisa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Small Business Economics* 49, pp.11-30.
- Cao, Z. and Shi, X., 2021,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Small Business Economics* 57, pp.75-110.

- Cavallo, A., Ghezzi, A. and Balocco, R., 2019, "Entrepreneurial ecosystem research: present debates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5, pp.1291-1321.
- Chinta, R. and Sussan, F., 2018, "A triple-helix ecosystem for entrepreneurship: a case review," in O'Connor, A., Stam, E., Sussan, F. and Audretsch, D. B. (eds.) *Entrepreneurial Ecosystems: Place-based Transformations and Transitions*, Springer.
- Cohen, B., 2006, "Sustainable valley entrepreneurial ecosystem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5, pp.1-14.
- Content, J., Bosma, N., Jordaan, J. and Sanders, M., 2020, "Entrepreneurial ecosystems,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economic growth: new evidence from European regions," *Regional Studies* 54(8), pp.1007-1019.
- Erina, I., Shatrevich, V. and Gaile-Sarkane, E., 2017, "Impact of stakeholder groups on development of a regional entrepreneurial ecosystem," *European Planning Studies* 25(5), pp.755-771.
- Feld, B., 2012, *Startup Communities: Build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Your City*, John Wiley & Sons, Inc.
- Gartner, W. B., Carter, N. M. and Reynolds, P. D., 2010, Entrepreneurial behavior: firm organizing processes, in Acs, Z. J. and Audretsch, D. B. (eds.)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n Interdisciplinary Survey and Introduction*, 2nd edition, International Handbook Series on Entrepreneurship, Springer.
- Hakala, H., O'Shea, G., Farny, S. and Luoto, S., 2020, "Restoring the business,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ecosystem concepts: the model-narrative review method,"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22(1), pp.10-32.
- Isenberg, D., 2010, "How to start an entrepreneurial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8(6), pp.40-50.
- Isenberg, D., 2011, "Introducing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four defining characteristics," *Forbes*, May 25, 2011.
- Johnson, D., Bock, A. J. and George, G., 2019, "Entrepreneurial dynamism and the built environment in the evolution of university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8(4), pp.941-959.
- Jung, K., Eun, J.-H., and Lee, S.-H., 2017, "Exploring competing perspectives on government-driven entrepreneurial ecosystems: lessons from centres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CCEI) of South Korea," *European Planning Studies* 25(5), pp.827-847.
- Kibler, E., 2013, "Formation of entrepreneurship intentions in a regional context,"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5(3-4), pp.293-323.
- Koo, J. and Yoo, S., 2016, "Two strands of entrepreneurship: a tale of technology ventures and traditional small businesses in South Korea," in Mack, E. A. and Qian H. (eds.) *Geographies of Entrepreneurship*, Routledge.
- Lahikainen, K., Kolhinen, J. and Ruskovaara, E. and Pihkala, T., 2019, "Challenges to the development of an entrepreneurial university ecosystem: the case of a Finnish university campus,"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33(2), pp.96-107.
- Loots, E., Neiva, M., Carvalho, L. and Lavanga, M., 2021,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in Porto: A sub-ecosystem approach," *Growth and Change* 52, pp.641-662.
- Low, M. B. and MacMillan, I. C., 1988, "Entrepreneurship: past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Management* 14(2), pp.139-161.
- Mack, E. A., 2016, "The geography of entrepreneurship," in Mack, E. A. and Qian H. (eds.) *Geographies of Entrepreneurship*, Routledge.
- Mack, E. and Mayer, H., 2016, "The evolutionary dynamic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Urban Studies* 53(10), pp.2118-2133.
- Malecki, E. J., 2018,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ecosystems," *Geography Compass*, 12(3), e12359.
- Maroufkhani, P., Wagner, R. and Wan Ismail, W. K., 2018, "Entrepreneurial ecosystem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12(4), pp.545-564.
- Mason, C. and Brown, R., 2014,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growth oriented entrepreneurship," Background

- paper prepared for the workshop organized by the OECD LEED Programme and the Dut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McCann, B. T. and Folta, T. B., 2008, "Location matters: where we have been and where we might go in agglomeration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34(3), pp.532-565.
- Miller, D. J. and Acs, Z. J., 2017, "The campus as entrepreneurial ecosystem: the University of Chicago," *Small Business Economics* 49(1), pp.75-95.
- Nicotra, M., Romano, M., Del Giudice, M. and Schillaci, C. E., 2018, "The causal relation between entrepreneurial ecosystem and productive entrepreneurship: a measurement framework,"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43(3), pp.640-673.
- O'Connor, A., Stam, E., Sussan, F. and Audretsch, D. B., 2018, "Entrepreneurial ecosystems: the foundations of place-based renewal," in O'Connor, A., Stam, E., Sussan, F. and Audretsch, D. B. (eds.) *Entrepreneurial Ecosystems: Place-based Transformations and Transitions*, Springer.
- Pitelis, C., 2012, "Clusters, entrepreneurial ecosystem co-creation, and appropriability: a conceptual framework,"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1(6), pp.1359-1388.
- Plummer, L. A. and Pe'er, A., 2010, "The geography of entrepreneurship," in Acs, Z. J. and Audretsch, D. B. (eds.)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n Interdisciplinary Survey and Introduction*, 2nd edition, International Handbook Series on Entrepreneurship, Springer.
- Qian, H., Acs, Z. J. and Stough, R. R., 2013, "Regional systems of entrepreneurship: the nexus of human capital, knowledge and new firm 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3(4), pp.559-587.
- Radinger-Peer, V., Sedlacek, S. and Goldstein, H., 2018, "The path-dependent evolution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EE) – dynamics and region-specific assets of the case of Vienna (Austria)," *European Planning Studies* 26(8), pp.1499-1518.
- Saravathy, S. D., Dew, N., Velamuri, R. and Venkataraman, S., 2010, "Three views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n Acs, Z. J. and Audretsch, D. B. (eds.)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n Interdisciplinary Survey and Introduction*, 2nd edition, International Handbook Series on Entrepreneurship, Springer.
- Saxenian, A., 1994, *Regional Advanta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ne, S. and Venkataraman, S.,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pp.217-226.
- Shane, S., 2012, "Reflections on the 2010 AMR decade award: delivering on the promise of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7(1), pp.10-20.
- Simonen, J., Herala, J. and Svento, R., 2020, "Creative destruction and creative resilience: restructuring of the Nokia dominated high-tech sector in the Oulu region," *Regional Science Policy & Practice* 12(5), pp.931-953.
- Sorenson, O., 2017, "Regional ecologies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7, pp.959-974.
- Sorenson, O., 2018, "Social networks and the geography of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51(3), pp.527-537.
- Spigel, B. and Vinodrai, T., 2021, "Meeting its Waterloo? Recycling in entrepreneurial ecosystems after anchor firm collapse,"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37(1), pp.1-22.
- Spigel, B., 2017a, "The relational organiza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pp.49-72.
- Spigel, B., 2017b, "Bourdieu, culture, and the economic geography of practice: entrepreneurial mentorship in Ottawa and Waterloo, Canada,"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7, pp.287-310.
- Stam, E. and Spigel, B., 2016,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Blackburn, R., De Clercq, D. and Heinonen, J. (eds.) *The SAGE Handbook of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SAGE.

- Stam, E. and Van de Ven, A., 2021, "Entrepreneurial ecosystem elements," *Small Business Economics* 56, pp.809-832.
- Stam, E., 2015,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policy: a sympathetic critique," *European Planning Studies* 23(9), pp.1759-1769.
- Stuart, T. and Sorenson, O., 2003,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spatial heterogeneity in founding rates and the performance of biotechnology firms," *Research Policy* 32(2), pp.229-253.
- Szerb, L., Lafuente, E., Horváth, K. and Páger, B., 2019, "The relevance of quantity and quality entrepreneurship for regional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Regional Studies* 53(9), pp.1308-1320.
- Vedula, S. and Kim, P. H., 2019, "Gimme shelter or fade away: the impact of regional entrepreneurial ecosystem quality on venture survival,"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8(4), pp.827-854.
- Wallin, A., Still, K. and Henttonen, K., 2016, "Entrepreneurial growth ambitions: the case of Finnish technology startup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6(10), pp.5-16.
- Wurth, B., Stam, E. and Spigel, B., 2021, "Toward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research program,"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published online March, 22, 2021).
- 교신: 구양미,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화: 02-880-9025, 이메일: yangmi@snu.ac.kr
- Correspondence: Yangmi Koo, 08826,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Tel: +82-2-880-9025, E-mail: yangmi@snu.ac.kr

최초투고일 2022년 03월 10일
수정일 2022년 03월 21일
최종접수일 2022년 03월 25일